노인들 "얼린 생수병 몸에 대니 살 것 같아"

경로당으로…사고 현장으로…숨가쁜 폭염대책반

폭염 취약계층들 건강상태 체크 비상

119 폭염구급대 운영 응급처치·후송

기록적 폭염이 이어지면서 광주·전남 일선 자치단체가 노인 등 폭염 취약계층 건강 관리 때문에 비상이 걸렸다. 119 폭염구급대도 잇따르는 폭염 환자들의 구급 요청에 바짝 긴장하고 있다.

◇얼린 생수병으로 '얼음 바람'= 낮 최고기온이 36도를 기록한 12일 오전 11시. 광주시 북구 운암동 B아파트 3단지 경로당에서 북구청 소속 폭염 대책반원들은 노인 20명의 얼굴을 자세히 살폈다. 땀을 유독 많이 흘리는 노인들은 없는 지, 폭염에 오랜 시간 노출되면서 무리한 활동을 하지는 않았는지 등을 일일이 물어보고 확인했다.

건강 상태를 확인한 뒤에는 '새로 구입한 전기제품 사용 설명서'를 알려주듯 꼼꼼하게 폭염 시 행동 요령을 설명했다. "이제 알았으니 그만해"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다.

김두호(56) 광주시 북구 폭염 대책반 팀장은 2ℓ 짜리 얼린 생수병을 선풍기 앞에 세워놓고 더 시원하게 선풍기 트는 요령을 알려줬다.

김 팀장이 고정주(80)씨에게 다가가 신문으로 감싼 얼린 생수병을 허벅지 사이에 올려놓자, 이 어르신은 "어휴, 시원해"를 연발했다. 옆에서 이를 지켜보던 다른 어르신들이 "나도 좀 줘봐"라고 아우성을 치자, 폭염 대책반 팀원들이 얼린 생수병 10개를 나눠줬다.

광주시 북구청 노인복지과 직원들로 구성된 폭염 대책반은 지난 6월 1일부터 관할 지역 내 경로당 등을 돌며 노인들의 건강 관리를 챙기고 있다. 부쩍 기온이 올라간 최근에는 더욱 바빠졌다고 한다.

◇119 폭염 구급대, 신고·출동할 때 초긴장=광주시 소방안전본부 폭염 구급대도 폭염이 지속되면서 하루하루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폭염 구급대는 열사·일사 환자가 발생하면 신속히 현장에 출동, 응급처치를 한 뒤 병원으로 후송하는 임무를 맡고 있다.

이 때문에 구급차엔 항상 얼음조끼·정제소금·정맥주사·얼음·물 스프레이 등이 준비돼 있다. 광주 폭염 구급대가 꾸려진 지난 6월 1일부터 12일까지 광주에서 일사·열사병 등의 증세로 9명이 응급 조치를 받았다.

남부소방서 폭염 구급대는 지난 10일 정오께 광주시 남구 주월중학교 인근 야산에서 밭일을 하던 최모(83)씨가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응급처치를 한 뒤 최씨를 병원으로 후송했다.

전남도내에서도 폭염에 노출된 30명이 119 폭염구급대의 도움을 받았다.

폭염구급대는 불볕더위가 이어지면서 이같은 환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광주시 소방안전본부 관계자는 "열사병은 수액 공급 등 응급조처가 필요하므로 꼭 구급대에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전남도 소방안전본부는 광주 32대(전체 대원 343명), 전남 90대(516명)의 구급차에 폭염대비 상비약을 갖추고 활동하고 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시원~ 하다" 광주시 북구청 직원들이 12일 북구 운암동 벽산아파트 노인정을 방문, 얼린 생수병을 이용한 시원한 바람으로 노인들에게 잠시나마 더위를 식혀주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반갑잖은 폭염 신기록

광주·전남지방 여름철 평균기온 분석

완도·장흥·고흥 1994년 더위 넘어서

불볕 더위가 지속되면서 광주·전남 폭염 기록 경신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2일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최근 30년간 여름철(6월1일~8월10일) 광주·전남 지역 평균기온을 분석한 결과, 올해 평균 기온평균이 지난 1994년 이래 가장 높았다.

올해 평균 기온은 광주 26.1도, 목포 24.9도, 여수 24.3도 등으로 지난 1994년 광주 26.4도, 목포 25.4도, 여수 24.9도 등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완도는 1994년 24.1도보다 1도가 높은 25.4도의 평균기온을 기록, 최고치를 경신했다. 장흥(25.2도)과 고흥(24.8도)도 평균기온 평균이 30년 내 가장 높게 기록됐다.

밤사이 최저기온이 25도 이상인 열대야로 잠 못 드는 밤도 1994년에 이어 가장 긴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의 경우, 지난 1994년 열대야 일수가 28일로 가장 많았고 올해 열대야 일수는 21일째로 30년간 2번째로 많다.

열대야 지속일수도 지난 6일부터 12일까지 6일동안 이어져 1966년 8월3일부터 12일까지 10일을 기록한 열대야 연속 발생 기록을 갈아치울 가능성이 점쳐진다.

한편, 기상청은 북태평양 고기압이 평년보다 강하게 발달한데다, 장마기간부터 축적된 덥고 습한 공기가 한반도를 덮으면서 고온 현상이 한동안 유지될 것으로 내다봤다.

/박정렬기자 halo@kwangju.co.kr

김종률 전 민주당 의원 한강 투신

경찰 수색작업

12일 새벽 5시45분께 김종률(사진·51) 전 의원(현 민주당 충북도당 위원장)이 한강에 투신했다는 신고가 들어와 경찰과 소방당국이 한강에서 긴급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반포동 서래섬 수상레저 주차장에서 김 위원장의 차량이 발견됐고 차량 안에는 휴대전화가 남아 있었다. 인근 요트 선착장에서 김 위원장의 신발이 발견돼 경찰은 김 위원장이 한강에 투신한 것으로 보고 잠수부를 투입해 수중 수색작업을 하고 있다.

김 위원장의 강남구 도곡동 자택에서는 '미안하다, 아이들을 잘 부탁한다'는 내용의 유서가 발견됐다고 경찰은 전했다.

김 위원장은 서울남부지검에서 바이오 벤처기업 알앤엘바이오가 금융감독원 간부 윤모씨에게 5억원을 전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지난 11일 조사를 받았다.

그는 검찰 조사를 받은 뒤 한 지인에게 '죽고 싶다'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이 메시지를 받은 지인이 경찰에 신고해 경찰이 김씨를 찾던 중 한강 둔치에서 김씨의 차량을 발견했다. /연합뉴스

'살인폭염' 일주일째…

광주·전남 교육청 "정상학업 어렵다" 방학 연장 검토

농민들, 농작물 수확해야 하는데 … 잇단 사고에 '시름'

40도에 육박하는 살인폭염이 일주일째 지속되면서 개학을 앞둔 학생들과 농민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학생들은 개학하면 찜통교실에서 공부와 씨름해야 하고, 농민들은 말라가는 농작물이 안타까워 뙤얕볕에서 일을 하다 되레 변을 당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광주시·전남도 교육청은 12일 폭염으로 인명 피해 등 각종 사고가 잇따르자 일선 학교의 방학기간을 연장해 개학을 늦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연일 35도를 웃도는 폭염에서는 개학을 하더라도 정상적인 학업이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광주시교육청은 14일부터 개학하는 관내 중학교들에 대해 1주일가량 늦춘 오는 23일 개학할 것을 권하고 있다. 초등학교는 이달 말 또는 다음달 초 개학하는 탓에 방학 연장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

전남도교육청도 관내 초등학교의 개학은 26일 이후, 중학교는 교육과정운영에 지장이 없는 선에서 가급적 연장할 것을 권할 방침이다.

더위와 몸으로 싸워야 하는 농민들의 시름은 깊어만지고 있다. 농작물을 수확하던 노인들이 폭염으로 사망하는 일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0일 오후 7시께 구례군 토지면 자신의 고추밭에서 일하던 양모(여·75)씨가 고추 수확을 하다가 더위에 쓰러져 숨졌다. 앞서 8일 오후 6시30분께 장흥군 용산면의 한 고추밭에서 일하던 김모(90)씨가 쓰러져 사망하는 등 폭염으로 인한 노인 사망자가 잇따르는 있다.

고흥에서 고추농사를 짓는 장재홍(56) 씨는 "고추를 제때 따지 않으면 작황이 나빠지고 병해가 오는 탓에 노인들이 무리하더라도 밭으로 나가는 형편"이라며 "얼음주머니를 이용하거나, 휴식을 자주 취하라고 권하지만 요즘처럼 하루 종일 날씨가 더우면 (더위를 피할) 마땅한 방법은 없다"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박정렬기자 halo@kwangju.co.kr

烹

닭·오리 1만4천마리

폭염에 잇따라 폐사

연일 계속되는 폭염으로 전남에서만 닭과 오리 1만4000여마리가 폐사한 것으로 집계됐다.

12일 전남도에 따르면 전남에서는 최근 폭염으로 닭 1만3400만리, 오리 1393마리 등 1만4793마리가 폐사했다.

지역별로는 강진이 3곳이었고 나주, 해남, 함평, 장성이 1곳씩이었다.

장성군의 닭 7200마리, 강진 농장 3곳의 1393마리는 이날 폐사했다. 전남도는 피해액이 36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산정했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쌍나팔

고3 아들 공부안해 천불난다…자기 집 불질러

○…고3 수험생인 아들이 공부를 하지 않는다며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40대가 경찰서행.

○…12일 여수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50분께 여수시 봉강동 장모(46)씨의 주택에서 불이 나 93㎡ 규모 조립식건물을 태우고 소방서 추산 4800여만원의 재산피해를 낸 뒤 진화됐다는 것.

○…장씨는 이불에 시너를 뿌리고 불붙은 가스버너를 던진 것으로 알려졌는데 "고3인 장남이 공부는 하지 않고 컴퓨터에만 매달려 있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났다"며 뒤늦은 후회.

/여수=김창화기자 chkim@

입학문의▶ 062-605-1115

2013학년도 후기

광신대학교 대학원 신입생 추가모집

www.kwangshin.ac.kr

【 주요일정 】

1. 일반전형

① 원서접수 : 2013. 8. 5(월) – 8. 16(금)

② 전 형 일 : 2013. 8. 20(화) 오전 10:00

③ 합격자발표 : 2013. 8. 26(월) 오후 2:00

④ 등 록 기 간 : 2013. 8. 27(화) – 29(목)

▼ 대학원 과정별 모집정원 현황

대 학 원	과 정	학 과	모집정원	전 공
일반대학원	박사	목회학과(D.Min.)	○	-
	석사	신 학 과(Th.M.)	○	구약, 신약, 조직, 기독교윤리, 역사, 설교예배, 선교, 목회상담, 주경
	석사	신학연구과(M.A.T.)	○	-
신학대학원	석사	신 학 과(M.Div.)	○	-
교육대학원	석사	교육학과(M.Ed.)	○○	유아특수교육, 초등특수교육, 상담교육

정통보수신학의 요람

59년 전통의 기독교명문대학!

믿음이 있는 대학 · 믿음을 주는 대학

광신대학교 KWANGSHIN UNIVERSITY

500-710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택지소로 36

오천경매투자

경매 비법 배우면서 투자 하실 분을
정중히 모십니다.

매주 2시간, 3개월 스터디 합니다.
NPL과 특수물건만 전문 취급하고
실제 낙찰 사례 교육이고 1:1 개인 교육합니다.

교육비는 1,200만원이고
경매로 부자 될 수 있는 방법을
확실하게 알려 드립니다.

단, 상담 후 결정합니다.

주, 오천경매 대표이사 최 선규 드림
문의 : 010-3605-5000